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4 • 4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창조연구의 열쇠

창조연구를 하는 데 비법은 없다. 모든 과학적인 탐구가 그렇듯이 학자적인 연구, 산술적인 엄격함, 실험의 정밀성, 주의 깊은 분석 등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연구도 진화연구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어려운 점이 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가능한 과학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창조나 진화 연구는 모두 역사적인 재구성 작업이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모두 다 똑 같은 자료(증거)를 연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현재는 과거의 열쇠가 아니다



과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증인인
창조자의 100% 틀림없는 설명



과거와
현재!!



계시는 과거와 현재의 열쇠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은



**OUR
THINKING
IN
EVERY
AREA!**



AIGCREATIONS

www.AnswersInGenesis.org

것이 중요하다. 큰 차이는 해석과정에 있다.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동일한 과거를 가정하고 시작한다. 즉 자연적인 과정들에 관여하는 자연법칙들이 끊임 없이 동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법칙들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과정의 속도는 어느 정도 변했을 수도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멀지 않은 과거까지는 자연적인 과정에 현재의 자연법칙이 동일하게 적용 되었지만, 기원 사건들에 관해서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자연법칙들이 그 기원들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초자연적인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들은 현재의 속도나, 규모나, 강도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서 현대 과학의 법칙 한계를 벗어난 것들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과정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들은 현재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설명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 지구 역사에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3개의 중대한 사건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건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료들을 적절히 해석할 가능성이 없다. 그 사건들은, 1) 태초에 모든 것들이 창조됨, 2) 아담의 죄로

현재의 자연법칙들이 그 기원들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초자연적인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들은 현재의 속도나, 규모나, 강도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서 현대 과학의 법칙 한계를 벗어난 것들이다. 우리들은 현재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설명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음, 3) 노아시대 대홍수이다.

성경은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출20:11)라고 주장한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 중에 창조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들은 창조를 보지 않았고 거기에 있던 분에게 들었을 뿐인데 우리는 지금 그 때 창조된 것들을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모든 창조물들을 바꾸어 버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다.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롬8:22). 식물들, 동물들, 인류, 심지어는 지구 자체가 이 형벌 아래 있다. 어떤 체계가 이것에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 사건의 영향력을 보고 있다. 그 후에 “그날에 거대한 깊음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표현 되었듯이(창7:11) 대홍수는 전 지구를 재편하였다. 우리는 지금 홍수가 난 땅 위에서 있다. 홍수 이후를 제외하고는 지구 어디에서도 동일과정설적인 과정의 결과들을 볼 수가 없다. 초기 지구가 형성되는 사건을 보지 못했듯이 대홍수 자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결과들을 볼 수 있다.

대홍수에 이은 네 번째 사건은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쳤는데 바벨에서의 분산이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바벨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기원, 이동, 유전학, 언어 같은 것을 결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흠으셨습니다.”(창 11:9). 모든 현대의 민족과 족속들은 바벨에서 흠어진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런 사건들은 현재의 과학적인 자료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들은 그 사건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창조자가 지구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그 성경의 사건들은 과학적인 연구에 필요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창조과학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고전 15:4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첫째 아담”

고전 15:45

“창조 기간이 6일이면 어땠고 6 억년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설명의 차이가 이 세상을 ‘사람(Homo sapiens)이라는 동물’이 다스리는 동물의 왕국으로 바꾸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경을 사실로 믿었던 서구 사상은 성경이 암시하지도 않은 수백만년 혹은 수억년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지질학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지식으로 창세기 1장의 “날”들을 “수백만년” 혹은 “수십억년”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 잘 닦여진 ‘오래된 지구’ 위에 진화론은 십사리 동지를 틀어 버렸다. 1959년 역사가인 그린(Greene)이 쓴 “진화론이 서구사상에 미친 영향:아담의 죽음”이란 책의 제목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진화론의 가장 큰 영향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이었다.

아담은 없고 유인원이 진화하여 “사람이란 동물”이 되었다는 진화론이 유럽과 미국을 완전히 덮어 버렸을 때 성경은 사실이 아닌 책으로 생각 되었고 따라서 성경적인 사상은 더 이상 그 사회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마저 성경대로 창조된 아담을 믿지 않게 되자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이라 불리는 예수님도 교회에 발붙일 수 없게 되었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당은 디스코텍이나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

교회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경적인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까닭이 없다. 결국 세상은 기준 없이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이 되었다. 생각하는 동물, 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 등등 그리고 영적인 동물들이 모여 사는 곳.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잠23:7). 나체주의, 동성연애, 가

정파괴, 혼전 동거, 낙태, 안락사, 배아줄기세포연구, 폭력과 전쟁, 인종주의, 약육강식의 경쟁 원리 등이 그 잘못된 생각의 단적인 열매들이다.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동물이 되어 버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평가하듯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증명도 되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학)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의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잡아 보는 것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말을 아주 쉽게 듣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창세기 1장의 하루가 다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여 두려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한 “날”을 “수십억 년”으로 바꿈으로써 사람이 동물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음을 뿐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는 누가 혹은 어떤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의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과거 역사는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할 사실이지 곰곰이 생각하여 깨달을 수 있는 미스테리가 아니다.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하신 창세기 역사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감격하고 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경고를 마음으로 새겨 들어야 한다.

세상의 법에 의해 제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마15:9).**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9, 10).”

물과 바다의 창조

창세기 1장 (7)

첫째 날 물로 된 지구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셋째 날에 그 궁창 아래 물에서 마른 땅인 물(dry land)을 드러내시는 모습이다.

성경적 지질학에서 창세기 1장에 대한 암석 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홍수 이전 지질학(pre-flood geology)”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노아홍수 격변이 발생하기 이전의 땅을 다루기 때문이다. 성경은 6일간의 창조이후에 지질학적 변화에 대하여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노아홍수 동안에 기존의 땅들이 파괴되고, 이동하고, 쌓이는 전지구적 지질학적 경험을 했음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노아홍수에 비해 홍수 이전의 땅의 변화에 대하여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홍수 이전의 지질학의 거의 유일한 언급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

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의 첫째 날의 땅과, 이번 본문인 셋째 날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의 셋째 날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묘사에서도 몇가지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이미 여러번 언급했듯이 첫째 날의 땅의 “혼돈과 공허(formless and void)”는 무질서(chaos) 상태가 아닌 “형태를 말하기 어렵고 아무도 살지 않는”의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창조의 모습이다. 첫째 날과는 비교해 볼 때 셋째 날의 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바로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라는 과정이다. 둘째 날 궁창에 의해 나뉜 “궁창 아래 물”이 한곳으로 모여(낮아져) 바다를 이루며 물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지질학에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퇴적학이다. 이전에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하에서 쌓이고 쌓여 지층

이 만들어 진다는 내용은 오늘날 퇴적학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밀도의 흙과 물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혼탁류(turbidity current)가 퇴적과정의 주된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이 혼탁류 이론은 여러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왔다.

그렇다면 셋째 날 물이 한곳으로 모이는 과정은 거대한 전 지구적인 혼탁류의 흐름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혼탁류는 분명 광역적인 지층을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한편 이 시기에는 아직 식물조차도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화석을 내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나중에 홍수 동안에 끼어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관찰되는 지질학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기반암 위에 갑자기 화석을 많이 포함하는 지층이 발견된다. 그림의 진화론적 기준 쪽(오른쪽)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질

학자들에게 이 경계는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기반암을 선크임브리아(Precambrian)기 지층, 그 위에 본격적인 화석이 발견되는 암석을 현생대(Phanerozoic)지층이라고 구분하였다. 아울러 화석이 없이 단단한 선크임브리아기 지층은 다시 뚜렷한 두 개의 기본 층으로 나뉘어진다. 아래 놓인 아주 복잡한 암석과 그 위에 뚜렷한 지층을 보여주는 퇴적암이 놓여있다. 지질학자들은 아래 암석을 시생대(Archean) 지층, 그리고 그 위에 뚜렷한 지층을 보여주는 암석을 원생대(Protero-

zoic Era) 지층이라고 명명하였다. 전 세계는 아래서부터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의 기본적인 세 순서의 지층을 예외 없이 보여준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이 이러한 뚜렷한 지층의 구분을 이름까지 지었다고 해서 과연 이런 현상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일까? 이들은 단지 쉽게 구분되는 이들 지층들의 이름을 지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창조과학자들은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기반암을 “홍수 이전 층”, 화석이 시작되는 지층을 “홍수 층”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리고 홍수 이전 층을 둘로 나누어



아래 복잡한 지층을 “창조 첫째 날의 층”, 그 위에 지층으로 구성된 암석들을 “창조 셋째 날의 층”이라고 부른다. 지질학적 특징들은 그 지층 순서와 암석의 특징이 성경적 기록과 정확히 맞아 떨어짐을 보여준다. 오히려 성경적 이해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이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 8:4).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던 때를 두고 물어보는 듯하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처음 땅에 대한 그분의 작업을 알 수 있으며 그 명명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순회세미나 | 탐사여행 | 창조과학 세미나

유학생 교회 순회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2월 8-18일 11일간 유학생교회 순회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순회 교회는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Illinois대), 퍼듀 한인 장로교회(Purdue대), 앤아버 한인 장로교회(Michigan대), 랜싱 새소망침례교회(Michigan 주립대)였습니다. 전체 약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종 진지하였으며 세미나 후에 성경과 과학에 대하여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원에 대한 근본적 질문”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진화론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자신이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닌, 오히려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아홍수” 세미나에서는 노아홍수가 역사적 사실이 단지 사실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화론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수십억년의 지구나이를 벗어나는데 열쇠가 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학생들에게 지구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음이 질문이나 반응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수천년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성경적 증거를 통해 이 세상의 분명한 시작과 확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진화론 부분을 확인하고 털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패러다임과 자연주의의 이해는 오



유학생교회 세미나 장면

늘날 오랜 지구와 진화론의 사고가 어떻게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창조과학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며, 어떤 곳은 학생들 스스로가 그 방법을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AIG에서 출판한 “Evolution Exposed”, “War of Worldviews”, “The New Answers Book” 등을 차례로 읽는 스터디 그룹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책들은 교과서에 나와있는 진화론의 내용에 대하여 그 결론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훌륭한 참고서들입니다. 세미나 후에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 “사실이라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학생 교회 순회 세미나는 “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탐사여행을 더욱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이 진화론적 세계관과 가장 갈등할 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캠퍼스에 창조과학사역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4 • 4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6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SARRK.COM / HSARRK@GMAIL.COM

창조연구의 열쇠

창조연구를 하는 데 비법은 없다. 모든 과학적인 탐구가 그렇듯이 학제적인 연구, 산술적인 엄격함, 실험의 정밀성, 주의 깊은 분석 등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연구도 진화연구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어려운 점이 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가 능한 과학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창조나 진화 연구는 모두 역사적인 재구성 작업이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모두 다 똑 같은 자료(증거)를 연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ACT 뉴스레터
〈Creation truth〉
매월 초 발간

청년들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

유학생교회 순회 세미나에 이어 최우성 선교사도 2월 28일부터 본인이 졸업한 Univ. of Southern California의 KCCC 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에 걸쳐 정기 모임 시간에 “노아홍수”, “지구의 나이”,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강의하고 있으며, 중부지부 이동웅 지부장은 3월 2일부터 12주에 걸친 청년부 창조과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창조과학 공부 붐이 일어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행정간사

새로운 전임 행정간사로 Esther Hong 자매가 지난 1월 말에 저희 창조과학선교회에 합류하여 3월부터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홍 간사는 지난 5년 동안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 위클리프에서 전임간사로 사역하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선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담당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과정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간사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특기사항 / 단신

- 4월 14일부터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창조과학학교”가 열립니다. 문의 847-845-5368
- 7월 17-19일 LA에서 출발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받게 됩니다. 참석 희망자는 사무실 (213-381-1390)로 연락 바랍니다.
- 5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8월 4-6일 실시 됩니다. 문의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해 주시면 됩니다.
- 월말에 발간되던 뉴스레터 Creation Truth가 4월호부터 월 초에 발간됩니다.
- 5월부터는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도자인 이재만 부회장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예레미야 17:9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빙하 연구



한 때는 빙하가 요세미티 계곡을 Half Dome(그림) 꼭대기까지 그리고 Tuolumne Meadows와 Sierra Nevada의 거의 정상에 있는 Tioga Pass까지 펼쳐 있었다(지도). 지금은 화강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대규모 빙하가 아래로 움직이면서 마모시켜 놓은 증거로 빙하의 존재가 사실이란 것과 움직인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빙하가 창세기 홍수 후에 생겼다면 어떻게 생겼고 왜 없어졌을까?

한 가지 설명은 4,500여 년 전에 끝났던 노아홍수 결과 어떤 곳은 대양의 온도가 120°F(48.9°C)까지 올

라가 다량의 증발을 유발시켰다. 이 습기는 바람으로 모아져 대륙들에 폭설이 내리게 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Sierra Nevada 산맥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공기 흐름에 대해 남북으로 수직 벽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공기는 높고 차가운 고도에서 많은 양의 눈을 내린다. 빙하기에는 남단이 미국의 북쪽 경계에 위치하는 강한 제트기류가 미 남서부를 지나게 되므로 강설량

을 크게 증대시켰을 것이다. 습기 있는 공기를 요세미테 국립공원 위에 밀고 간 이 강한 바람은 빙하를 만들었을 것이다. 2~3천년 전 대양의 온도가 내려가자 강설량은 줄었을 것이고 빙하는 녹게 되었을 것이다.

요즘 요세미테 국립공원에는 겨울에만 눈이 내리고 여름이면 완전히 녹아버린다. 캘리포니아 해안 태평양의 수온이 노아홍수 후에 약 120°F에서 겨울철 평균 온도 60oF (15.5°C)로 떨어짐으로써 빙하기가 끝나게 되었다. 엘니뇨 현상으로 대양 표면 수온이 1-3°F 오를 때가 있다. 이런 온도 상승은 폭풍우나 강설량을 증가시키지만 이런 날씨는 불과 1-2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영구 빙하를 만들기엔 충분한 눈을 만들지 않는다.

노아홍수의 기상효과 연구를 위해 연구용 컴퓨터에 MM5라는 날씨와 기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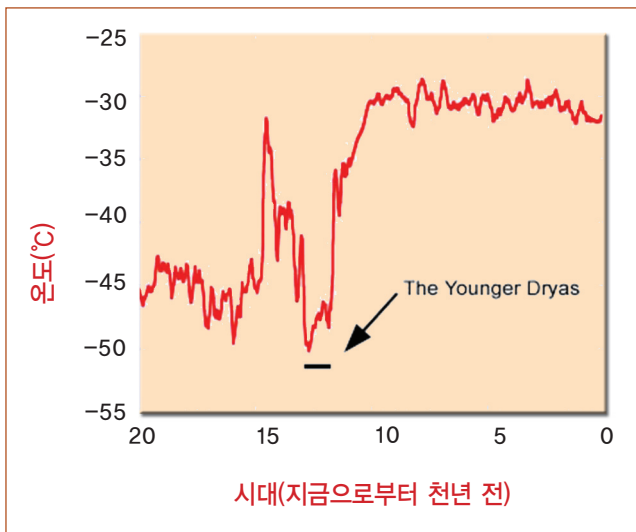
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고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눈이 많이 내려 빙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한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에 따라 눈의 양과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되는데 특히 대체적으로 따뜻한 해수 표면 조건에서 단기간의 추위의 영향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목표는 빙하기

말기에 단기간 동안만 추웠을 때 빙하의 분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빙하가 녹은 차가운 물이 대양에 흘러 들자 해수 표면 온도를 내렸을 것이고 결국 증발량을 감소시켜 미국 동부나 유럽의 갑작스런 기후 변화(Younger Dryas event, 세속 과학자들이 12,000여년 전의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설명함, 그림 참고)같은 요세미테의 빙하 변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2008년 8월의 창조론 국제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들은 과학을 통해서 우리 창조자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된다. “우박을 띄 부스르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시편 147: 17-18).

Larry Vardiman, 대기과학 박사, ICR 대기학과 교수/ ICR 연구 책임자

출처: ACTs & FACTs, March 2008



사탄은 교회의 **터와 뿌리**를 공격합니다

우선 짧은 2주의 시간이었지만 2007년을 마무리함에 있어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년이라는 사역기간 동안 수 많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들어왔고 또한 내 스스로 질문을 던져 봤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비로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깨닫게 된, 영상에 삽입된 그 그림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우뚝 솟아 오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안심할 때 사단은 십자가가 세워진 터와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단은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고 오해시키기 위하여 신앙의 가장 근본인 창조의 법칙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신앙인들 간의 분명한 차이는 곧 창조주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대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 저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창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사역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여짐으로서 믿음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단계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현재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단계냐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일종의 디딤돌처럼 말입니다.

또한 과학은 현재의 믿음에 더해 확신과 신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저희들에게는 특별히 더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지만 그 싸움은 곧 인간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이란 존재 속에 이성이란 부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지만
그 싸움은 곧 인간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기에 과학적인 모든 원리와 증명들을 무시한 채 신앙을 고수한다면 그것 또한 완전한 신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의 영역 안에서 연구해 가고 증명해 나가는 창조과학자들의 노고가 얼마나 위대한 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2008년도의 사역 계획 속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LA의 청소년들에게 창조의 세계를 일깨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1,5세 한인 청소년들은 진화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무모한 진화론을 왜 깨부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불같이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 1,5세를 섬기는 하용수 전도사



2008년

4/4-5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407-295-6292), FL
 4/11 은혜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310-830-3100), CA
 4/14-6/23 제6기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한인교회, 847-845-5368), IL
 4/18 은혜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310-830-3100), CA
 4/25 은혜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310-830-3100), CA
 4/28-5/1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425-488-1004)

5/1-3 락포드 한인장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815-974-7778), IL
 5/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앨버틴 온누리교회, 949-261-9100)
 5/19-22 창조과학 탐사여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713-789-5577)
 5/24-26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446-2821)
 5/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글로벌 선교교회, 213-344-6042)

6/3-5 창조과학 탐사여행 (주님의 영광교회, 714-634-4408)
 6/9-12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Conference 목회자, 425-488-1004)
 6/13-15 시애틀 형제교회 (세미나, 이재만, 206-661-1179), WA
 6/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갈보리교회, 858-717-0544)
 6/23-26 창조과학 탐사여행 (중앙선교회)

7/1-5 창조과학 탐사여행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404-509-8358)
 7/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8/1-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446-2821)
 8/4-6 5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8/7-14 창조과학 탐사여행 (어린이 전도협회)
 8/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선한목자 장로교회, 909-772-9233)
 8/18-23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 (월서/앨버틴/샌디에고 온누리교회)

9/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FMNC, 562-305-3726)
 9/21-26 창조과학 탐사여행 (서울 사대부고 동문)
 9/29-10/1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10-12 한마음 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925-828-3219), CA

후 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